

I. 서 론

최근 청소년 관련 통계에 의하면, 청소년들은 정신적 질병, 자살, 잦은 결석과 중퇴, 물질의존, 청소년 임신, 학교폭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들의 건강과 지위를 위협받고 있다. 청소년 문제행동이 양적·질적으로 급속하게 증가되면서, 최근의 일부 연구자들은 이들 문제행동을 위험행동(risk behavior)의 개념으로 이해하려는 움직임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Arnett, 1998; Burum, 2000; Steinhauen & Winkler, 2001; Voydanoff & Donnelly, 1999). 연구자들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으로 인하여 위험행동에 개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이것은 그들의 정상적인 발달과정일 뿐 그 자체가 문제행동이나 장애행동은 아니라고 규정한다.

청소년들은 다른 연령 집단보다 더 조급하게 운전하고, 더 난폭하게 싸움을 하며, 더 무모하게 성 행동을 시도하고, 더 반항적으로 행동한다(Borum, 2000; Gullone, Moore, Moss & Boyd, 2000; Zuckerman, 1994). 이와 같은 청소년의 특성은 신체·생리적 발달과 인지능력의 발달, 정서의 다변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이 시기의 정상적인 발달적 과정이다(한상철, 임영식, 2000). 청소년기의 무모한 행동, 모험추구 행동, 반사회적 행동 등은 위험행동의 하위 범주를 구성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동의 긍정적인 결과는 사회 적응 및 창조적인 행동과 연결되며, 부정적인 결과는 죽음, 건강상실, 지위상실, 사회적 처벌 등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청소년 교육의 과제는 청소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위험행동이 극단적인 문제행동으로 전개되는 것을 차단하고, 사회 창조적이고 개척적인 행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한상철, 2001).

학교를 무단 이탈하여 수업시간을 빼먹고 있는 청소년의 경우, 그들

은 학교 수업의 지루함과 압박감으로부터 탈출하여 나름대로 작은 감각적 흥분과 긴장감을 즐기는 것일 수 있다(Arnett, 1998). 그러나 감각적 흥분과 긴장감을 지속시키고 강화시켜 나갈 때, 위험행동의 긍정적인 결과와는 점차 거리가 멀어질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학업수행을 저하시키고 교사와의 관계를 악화시키게 될 것이다. 결국 학교 중퇴나 가출 등으로 인하여 학생 지위를 상실하게 되고, 건강을 악화시키게 됨으로써 극단적인 비행과 장애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도식 때문에 많은 부모와 교사들은 작은 감각적 흥분이나 신기성(novelty)을 추구하는 청소년의 행동에 대해서까지 이를 지나치게 통제하거나 차단하며, 또한 잘못된 행동(misbehavior)으로 각인시켜 가는 것 같다. 이로 인하여 청소년들의 모험적이고 개척적인 행동까지도 차단함으로써, 청소년들은 점차 성인 사회의 가치기준 속에서 따분하고 지겨운 생활에 길들여지고 있다. 청소년의 삶의 과정이 생동감있고 가치로운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위험행동이 지속되고 강화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부정적인 행동결과와 연결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정적 행동결과를 야기하는 위험행동의 관련 요인들을 분석함으로써, 위험행동의 경로를 정확하게 도식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근거하여 오늘날 많은 연구자들(Steinhausen & Winkler, 2001; Kazdin et al., 1997; Rutter, 1990; Selman et al., 1996; Voydanoff & Donnelly, 1999; et al.)은 청소년기 위험행동의 관련 요인들을 분석하고, 이를 설명하기 위한 모형을 개발하는데 역량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관련 연구물들이 축적됨에 따라 다양한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으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위험행동의 개념 정의에 관한 것이다. 위험행동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보편 타당성이 약함에 따라 위험행동을 구성하는 요인이나 범주가 연구자들마다 다르며, 측정도구 역시 보편화되지 못하고 있다(Gullone et al., 2000). 그러므로 위험행동의 관련 요인을 분석하고 모형을 개발하기에 앞서 위험행동의 보편적인 개념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위험행동의 구조를 결정하는 공통적인 요인 및 범주를 밝혀줄 것이다.

이와 함께 청소년들의 위험행동에 기여하는 요인들을 다각적인 차원에서 분석해 보아야 할 것이다. 예컨대, 청소년들이 이 왜 더 조급하게 운전하고, 무분별한 성 행동을 하고, 약물사용과 폭력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하고, 자살생각을 더 많이 하고, 따분함과 우울감을 더 많이 경험하는지를 분석해 봄과 동시에 이와 같은 위험행동의 부정적인 결과를 차단 또는 조절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혀볼 필요가 있다(Steinhausen & Winkler, 2001; Voydanoff & Donnelly, 1999). 지금까지 대부분의 인과적 연구들은 결과 변인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과, 원인 변인의 처치에 의한 결과 변인의 변화 정도를 관찰하는 데 초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위험행동의 원인 변인을 모두 밝혀낼 수도 없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모두 제거할 수도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원인변인 가운데는 위험행동의 긍정적인 결과를 촉진시키는 많은 요인들이 포함되어 있음으로써 이들 모든 원인변인을 제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적합하지 않다. 그러므로 위험행동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키거나 원인과 결과를 중재하는 요인을 밝혀낼 필요가 있다. 이 때 전자를 보상 요인(compensatory factor)이라고 하고, 후자를 보호적 요인(protective factor)이라고 하여 이들을 구분하기도 하지만(Steinhausen & Winkler, 2001), 양자 모두 청소년의 부정적 위험행동을 감소 또는 차단시켜 준다는 점에서 함께 포함시켜도 될 것으로 생각된다.

위험행동의 원인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호르몬(Zuckerman, 1994; Irwin & Millstein, 1986), 감각추구성향(Zuckerman, 1994, 1991; Arnett, 1996, 1998), 부모의 감시 및 통제 결여(Hartos et al, 2000; Whitaker & Miller, 2000), 또래친구의 압력과 비행친구와의 접촉(Voydanoff & Donnelly, 1999) 등을 위험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들 요인 가운데, 감각추구성향(sensation-seeking)은 단일 요인으로 청소년의 위험행동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으로 밝혀져 왔다. 감각추구성향은 흡

연(Zuckerman et al., 1994), 난폭 운전(Donovan et al., 1991; Furnham & Saipe, 1993), 속임수 또는 도박행위(Zuckerman, 1994) 등의 위험행동을 예측해 주고 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사회 맥락적 요인(비행 또래와의 관계, 또래압력의 수용성, 가정 내 갈등과 폭력 경험, 부적절한 양육태도 등) 또한 성적 위험행동(Whitaker & Miller, 2000)과 공격적 위험행동(Borum, 2000), 건강관련 위험행동(Boyer et al., 2000) 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위험행동은 개인 내적 요인과 사회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원인론은 청소년 위험행동이 왜 발생하는가를 설명해주는 데는 적합하지만, 위험행동으로 인한 부정적인 행동 결과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위험행동의 원인을 분석함과 동시에 원인 변인의 효과를 중재 또는 완충시킴으로써 위험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보호적 요소(protective factors)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보호적 요소는 개인적 특성 및 대처능력, 가족환경, 또래관계 등을 통하여 위험행동으로부터 비롯되는 부정적 결과의 가능성을 감소시키거나 양 변인의 관계를 완충해 주는 기제 또는 과정을 의미한다(Jessor et al., 1995; Voydanoff & Donnelly, 1999). 또래와 부모의 사회적 지지, 부모의 관여와 감시, 부모와의 의사소통, 친척이나 교사의 보호 및 노력, 단체활동에의 참여, 긍정적인 학교환경 등이 이에 포함될 수 있다(Hartos et al., 2000; Voydanoff & Donnelly, 1999; Whitaker & Miller, 2000).

청소년 위험행동의 원인과 보호적 요소가 점차 확인됨에 따라 이들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모형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 가운데 Irwin과 Millstein(1986)의 상호작용 모형은 위험행동의 원인과 보호적 요소간의 상호작용적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모형은 위험요인과 보호적 요인의 상호작용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다. 위험요인이 어떻게 하여 위험행동에 영향을 주며, 보호적 요인이 어떤 과정을 통해 위험행동을 감소 또는 중재하는지에 대해 분명한 설명이 부족하

다. 한편, Selman 등(1992)은 위험행동의 발달적 모형을 제안하였는데, 이 모형은 위험요인이 개인의 심리 사회적 중재변인을 통해 위험행동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그러나 위험요인의 작용만 포함시키고 있을 뿐 보호적 요인의 작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며, 위험요인 또한 구체적으로 분석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문헌을 통해 청소년 부정적 위험행동에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과 보호적 요인을 탐색하고, 이들 가운데 몇 가지 주요 요인들과 위험행동과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한다. 이것은 우리나라 청소년의 위험행동 경향성과 관련 요인의 영향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리고 선행 연구와 기존 모형에 근거하여 위험요인과 보호적 요인의 상호 관계와 위험행동에 대한 영향력을 설명하는 발달적 통합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 위험행동의 개념과 특징

청소년기의 위험행동에 대한 연구들이 양적·질적 발전을 거듭하면서 위험행동의 개념적 특징 및 범주를 확인하고 관련 요인들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방향으로 점차 연구자들의 관심이 전환되고 있다(Arnett, 1992; Booth, Zhang, & Kwiatkowski, 1999; Borum, 2000; Hartos, Eitel, Haynie, & Simons-Morton, 2000; Gullone, Moss, & Boyd, 2000). 이러한 연구들에 의하면, 청소년기는 생의 다른 어떤 시기보다 무모함과 스릴 추구 그리고 반사회적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특징지어 진다.

위험행동(risk behavior)이란 일반적으로 신체적, 심리적, 법적,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는 행동이며, 또한 사회적 규범에 반대되는 행동이다. 이것은 문제행동, 무모한 행동, 일탈, 비행 등의 개념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무모한 행동이나 반사회적 행동 뿐만 아니라 모험적이고 개척적인 행동까지 포함함으로써 이들 개념보다 더 포괄적이며 교육적 처치 가능성 또한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위험행동의 부정적인 결과는 자신의 건강을 위협하거나 손상을 입히는 행동(난폭 운전, 싸움, 흡연, 약물남용, 무분별한 성 행동 등)과 사회·경제적 지위를 위협하는 행동(가출, 수업 빼먹기, 부정행위, 학교 중퇴 등)으로 크게 양분되지만(Levitt & Selman, 1996),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들(Booth et al., 1999; Whitaker & Miller, 2000)은 건강관련 위험행동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어 왔다. 즉, 위험행동에 대한 연구가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초기부터 이 용어는 건강에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는 어떤 행동 즉, 약물남용, 조속한 성 관계, 보호장치를 사용하지 않은 성 행동, 위험한 자동차 운전, 자살행

등, 섭식장애 등을 한데 묶는데 사용되었다(Arnett, 1998).

위험이란 손실의 가능성(chance of loss)으로 정의됨으로, 위험행동 역시 주관적인 면에서 손실의 가능성을 초래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위험행동이 주관적으로 해석됨에 따라 위험행동의 개념에는 개인의 의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즉, 여러 대안적인 행동들을 의식적으로 재어보고 행동을 취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Irwin(1993)은 위험행동을 “그 행동의 결과 나타날 수 있는 미래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신의 의지에 따라 수행되는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 한편 Arnett(1998)는 위험행동을 무모한(reckless) 행동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위험행동을 경제적 계산이나 모험추구 행동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하는 반면, 무모한 행동을 심각한 개인적 상처나 죽음, 법적 희생, 원하지 않은 임신 등과 같이 장기적이고 심각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행동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Moore와 Gullone(1996)은 청소년의 위험행동을 “잠정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내포하지만(상실), 지각된 긍정적 결과(이득)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든 균형이 유지되는 행동”(p. 347)이라고 정의하였다. 이 때 행동의 긍정적인 면에 더 비중이 주어지면 그 행동은 위험하지 않은 것으로 지각되지만, 부정적인 면에 더 많은 비중이 주어진다면 위험한 것으로 지각된다. 그러므로 지각된 위험수준은 이러한 두 측면간의 균형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이와 같은 개념화에 근거할 때, 위험행동은 부정적인 결과와 긍정적인 결과를 모두 내포하면서 개인의 지각 또는 신념에 의해 그 방향이 결정된다. 그러나 위험행동이 극단적인 문제행동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그것이 대체로 모험적이고 반항적이며, 무모하고, 반사회적인 성격을 많이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2. 위험행동의 측정과 범주

위험행동에 대한 정의 및 개념화와 구성요인에 대한 연구는 특히 평가도구의 개발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Gullone 등(2000)은 기존의 연구들에서 위험행동에 포함되는 공통된 요소를 발견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하고, 이는 위험행동의 범주를 구분 짓고 평가도구를 개발하는데 많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Levery 등(1993)은 위험행동을 구성하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이를 범주화하려고 하였다. 그들은 10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23개 항목의 Q-sort법을 이용하여 위험행동의 범주를 5개로 구분하였다. 이들이 유목화한 범주는 범죄(찍치기, 음주운전, 풍속범죄), 문제운전(낮선 사람 태우기,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 음주한 사람을 태우는 것), 건강 위협행동(섹스, 술에 만취하는 것, 콘돔 미사용, 다이어트 실패, 일광욕), 지위 손상(가출, 시험 부정행위, 친구와 신체적 싸움, 학교 중단), 약물사용(알코올 섭취, 마리화나 피우기, 술 마시기, 담배 피우기)이다. 연구자들은 이와 같은 범주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5가지 범주의 위험행동에 대한 지각 수준이 높을수록 위험행동예의 관여가 낮다고 하였다.

그리고 Alexander 등(1990)은 성인들이 위험한 것으로 정의한 행동과 청소년들이 정의한 행동간에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고, 청소년의 보고에 기초하여 위험행동 평가척도를 개발하였다. 이들은 6개의 문항을 개발하여 교외에 거주하는 13-14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구자들은 2개의 요인 즉, 반사회적 행동(훔치기, 줌도둑, 낮선 자동차 타기)과 신체적 묘기행동(오토바이나 보트를 사납게 운전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Arnett(1992)의 연구는 위험한 행동보다 무모한 행동에 더 초점을 두고 있는데, 그는 특히 남자들의 경우 테스토스테론 수준의 증가와 모노아

민 산화 억제제(MAO)가 청소년의 충동성을 결정한다고 하였다. 남자들의 이와 같은 호르몬은 감각추구성향(sensation-seeking)의 증가를 유도하며, 이는 또 다시 무모한 행동을 촉발시킨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가정을 검증하고자 질문지를 개발하였는데, 여기에 포함된 문항들은 음주 운전, 과속운전, 경주, 피임기구를 사용한 섹스와 이를 사용하지 않은 섹스, 불법 약물에 관한 것이었다. Arnett(1998)는 감각추구성향이 무모한 행동의 발달적 기초가 된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행동이 여자보다 남자들에게 그리고 성인초기보다 청소년후기에 더 보편적이라는 연구결과를 통해 감각추구성향은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Gullone 등(2000)은 위험행동에 기저하는 구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Alexander 등(1990)과 같이, 청소년의 보고에 기초하여 위험행동의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22개 문항으로 된 질문지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의 위험행동을 4개의 범주로 분류하였다. 4개의 범주는 모험추구행동, 반항적 행동, 무모한 행동, 반사회적 행동이다. 여기서 모험추구행동은 일반적으로 사회 수용적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위험행동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행동의 부정적인 결과 또한 강력하거나 심각한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경쟁하는 것'의 가장 그럴듯한 부정적 결과는 자존심 상실이다. 이 범주에 포함되는 다른 행동들은 '도전적인 것', '경계선 내에서 스케이트 타기', '낙하산 타기' 등이다. 두 번째 반항적 행동과 네 번째 반사회적 행동은 대체로 유사한 행동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생명을 위협하는 성질의 행동이라기보다 오히려 사회적 또는 법적 결과로 귀착될 수 있는 행동들이다. 세 번째의 무모한 행동은 위험행동의 고정관념에 가장 적합한 행동들으로써, 과속하기, 자동차 몰래 타기, 보호되지 않은 섹스 등을 포함하며, 가장 위험한 결과가 예상되는 범주이다.

Gullone 등(2000)은 청소년 위험행동 질문지(ARQ)의 개발과 관련하여 12세-17세의 청소년 570명을 6개 지역으로부터 표집하였고, 개발된 ARQ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11세-18세의 925명을 선정하였다. 이것

은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표본 구성이다. 그리고 도구 개발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자신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자유롭게 반응하도록 하여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요인분석을 통해 4개의 범주를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현재 청소년 위험행동의 측정도구로 Gullone 등(2000)이 개발한 ARQ가 가장 적합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와 더불어 그들이 제안한 네 개의 범주가 위험행동의 범주로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3. 위험행동의 관련 요인

1) 관련 변인들간의 상호 관련성

위험행동의 부정적 결과는 심리적 부적응과 정신건강의 악화, 신체 건강의 상실, 학교 성적의 저하, 사회적 이탈행동 등으로 나타난다. 개인의 부적응 및 부정적 행동결과와 관련된 변인들에 대해 Voydanoff와 Donnelly(1999)는 이를 위험요인(risk factor)과 보호적 요인(protective factor)으로 크게 양분하여 설명하고 있고, Steinhausen과 Winkler(2001)는 이외에 보상요인(compensatory factor)과 취약성 요인(vulnerability factor)을 추가로 포함시켜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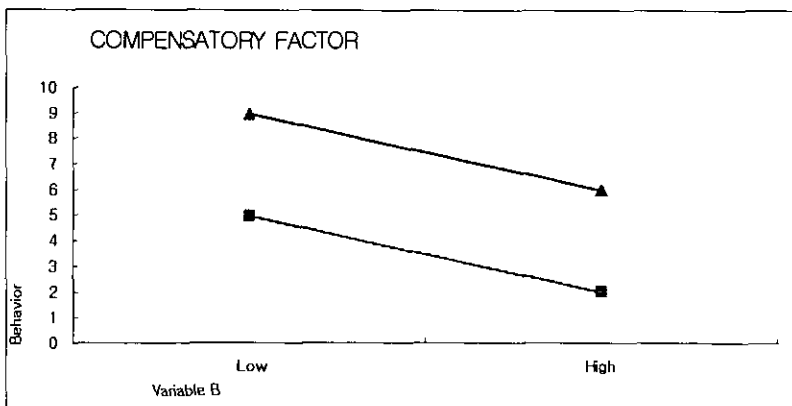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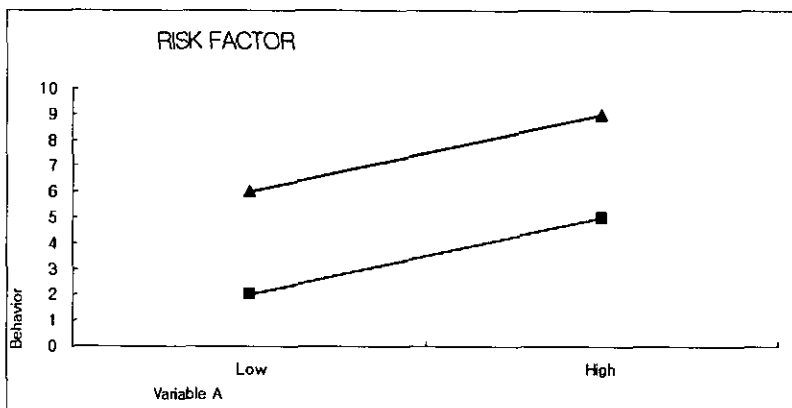
이 가운데 위험요인과 보상 요인은 위험행동의 부정적 결과에 대해 주효과를 갖는 변인으로, 부정응 또는 정신적 장애를 직접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요인들이다. 대표적인 위험요인으로 회피행동, 부모의 거부적 행동, 또래들간의 부정적 압력, 교사의 통제행동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요인들은 스트레스 인자와 관계없이 개인의 부적응 행동을 증가시킨다(Steinhausen & Winkler, 2001). 한편, 보상 요인은 위험요인이나 스트레스 인자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부적응 행동 및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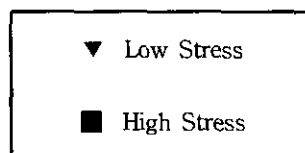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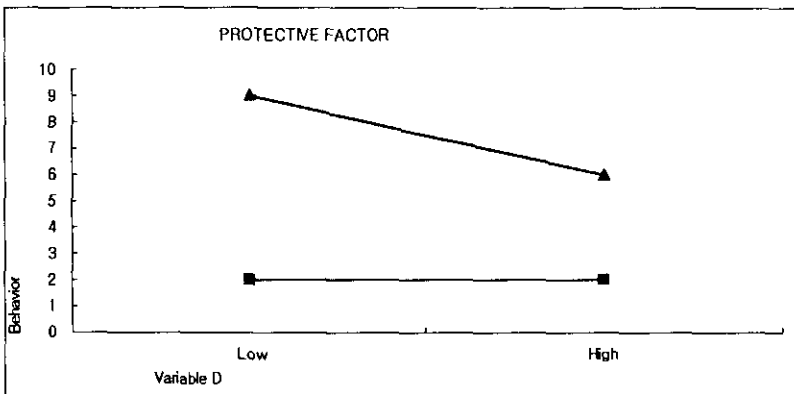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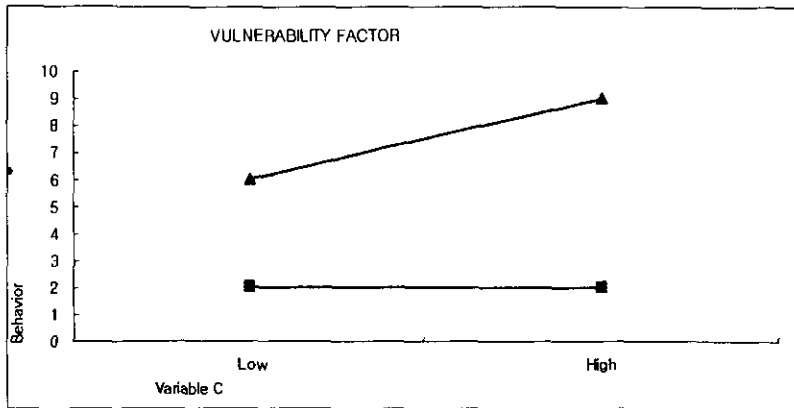
변인으로, 자기 존중감, 부모에 의한 수용성, 또래 수용성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Brown & Chapman, 1996; Dubow & Luster, 1990). 결과적으로, 위험요인은 정신적 또는 사회적 문제행동을 증가시키는 반면, 보상요인은 위험요인과 독자적으로 위험행동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갖는다(Luthar, 1993; Rutter, 1990).

그리고 취약성 요인과 보호적 요인은 위험행동의 부정적 결과에 간접적으로 작용하여 부적응 행동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즉, 변량분석(ANOVA) 모형에서의 상호작용 효과에 의해 특징지어 진다. Steinhausen과 Winkler(2001)에 따르면, 취약성 요인의 경우 높은 스트레스 상태에서 위험행동을 증가시키는 반면 낮은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위험행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예컨대, 남자 청소년들에게 주로 영향을 주는 수행 스트레스가 대표적인 취약성 요인에 속한다. 보호적 요인은 이와 반대로 높은 스트레스 상태에서 위험행동을 감소시켜 주지만, 낮은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의미있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적극적 대처와 또래 수용성이 대표적인 요인이다. 일반적으로, 취약성 요인은 부적응과 정신병리를 촉진시키는 장기적 또는 지속적인 조건이나 생활환경으로 간주되며, 보호적 요인은 부적절한 환경 및 조건에서조차 개인의 위험행동을 감소시켜 주는 중재변인으로서 간주된다. 다음 페이지의 <그림 1>은 위험행동과 관련된 네 가지 변인들 각각을 보다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Steinhausen & Winkler, 2001).

두 개의 쌍으로 이루어진 네 개의 변인들은 지금까지 거의 독자적으로 연구되어 왔을 뿐, 그들 변인들의 위험행동에 대한 상대적인 기여도가 종합적으로 연구되지 못하고 있다. 위험요인과 보호적 요인간의 관계는 일부 연구자들(Voydanoff & Donnelly, 1999)에 의해 밝혀지고 있으나, 보상요인과 취약성 요인에 대해서는 이들 요인들이 충분히 밝혀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보상 요인과 취약성 요인은 개념적으로 위험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주요 변인이지만, 그 요인들은 위험요인과 보

호적 요인과 중복되는 성질은 지니고 있다. 따라서 위험요인과 보호적 요인만으로 위험행동의 원인을 설명하고 위험행동의 부정적 결과를 감소시키거나 효과를 중재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취약성 요인은 결국 위험행동을 증가시켜 준다는 점에서 위험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보상요인은 위험행동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보호적 요인에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에서는 위험요인과 보호적 요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들 요인들을 중심으로 위험행동의 발달적 모형을 구성하고자 한다.





<그림 11-1> 위험행동에 영향을 주는 각 변인들의 관계
(Steinhausen & Winkler, 2001, p.261)

2) 위험요인

(1) 개인 내적 요인

위험행동의 개인 내적 요인은 크게 생물학적 요인과 심리학적 요인으로 구분된다. 먼저, 생물학적 이론(biologically based theories)에 따르면, 위험행동은 호르몬, 불균형적인 사춘기 시작, 또는 유전학적인 소인 등으로부터 기인된다. 위험행동은 가족 내에서 파생되는 경향이 있으며, 어떤 가족은 다른 가족보다 손상과 관련된 행동을 더 많이 한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유전학적 모델이다.

쌍생아 입양연구(twin-adoption studies)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의 쌍생아로 태어나 알코올 중독자가 아닌 부모에 입양되어 양육되더라도 알코올 중독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다(Cloninger, 1987). 또 특정 하위 형태의 알코올 남용은 가족 내 공통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는데, 이러한 행동은 청소년기에 시작되고 주로 남성들에게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들의 특징은 금주를 못하고, 싸움에 쉽게 개입하고, 법적인 개입을 초래하며, 신기성 추구행동(novelty seeking)을 많이 한다.

호르몬 또한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면, 남자의 성교 개시(coital debut)는 청소년기의 남성 호르몬(testosterone) 증가와 관련이 있는 반면에 여자의 경우는 사회적인 통제 및 사춘기 발달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 Arnett(1992)는 남자 청소년들의 경우 테스토스테론 수준의 증가와 모노아민 산화 억제제(MAO)가 청소년의 충동성을 결정한다고 하였다. 남자 청소년의 이와 같은 호르몬은 감각추구성향의 증가를 유도하며, 이는 또 다시 무모한 행동을 촉발시킨다고 한다. 사춘기 시작 시기는 유전 및 호르몬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Irwin과 Millstein(1986)은 불균형적인 사춘기 시작 시기(즉, 동료들보다 빠르거나 늦은)가 위험행동의 한 요인이 된다는 가설을 설정하

였다. 조숙한 여자 청소년은 어린 연령에 성생활을 개시할 가능성이 많으며, 더 어린 나이에 성 활동을 개시할 경우 피임도 더 적게 하고 성 파트너도 더 많아져서 결과적으로 임신이나 성인성 질병의 위험이 더 증가된다는 것이다.

둘째, 심리학적 원인론에 따르면, 위험행동은 인지적인 미성숙, 정서적 불평형, 높은 감각추구성향 등에 기인한다. 인지이론에 기초한 위험행동 이론은 개인이 위험을 인지하고 위험감수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방법에 대해 연구한다. 즉, 청소년들이 스스로를 '불사신'(invulnerable)과 같은 존재로 착각하는 데서 위험행동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성인들과 달리 장기적이고 심각한 결과보다 근접적인(proximal) 결과에 더 많이 좌우된다. 예를 들어 Kegels 등(1988)은 14-16세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콘돔을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는 콘돔이 성병이나 임신을 막아주는 정도에 대한 믿음과 연관되어 있지 않고, 콘돔이 사용하기 쉬운지, 동료들에 의해 인기가 있는지, 성 활동을 얼마나 촉진시켜 주는지 등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청소년의 인지적 미성숙은 그들의 위험행동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는 풍부하지 않은 실정이다.

심리적 요인 가운데 감각추구성향(sensation seeking)은 청소년의 위험행동을 예측해 주는 가장 강력한 변인으로 취급되고 있다(Zuckerman, 1994; Arnett, 1992, 1998). 감각추구성향은 다양한 영역의 위험행동 즉 흡연, 음주, 운전습관, 도박, 성 행동, 여행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 개념은 Zuckerman이 1960년대 초에 감각추구성향 척도(SSS; Sensation Seeking Scale)를 처음 개발한 이후 서구에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아 왔다. 그는 감각추구성향을 '신체적·사회적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다양하고 신기하며 복잡한 감각이나 경험을 추구하려는 욕구'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그가 개발한 감각추구성향 척도는 4가지 하위변인을 포함하는데 모험추구성향, 탈 억제 성향, 지루함에 대한 민감성, 그리고

경험 추구성향이 그것이다.

감각추구성향에 대한 연구는 위험운전과 관련하여 많이 실시되었다. Zuckerman 등(1994), Clement와 Jonah(1984)는 감각추구성향 점수가 높을수록 위험운전(과속, 끼어들기 등)이 더 많이 발생하였음을 보고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 Arnett를 비롯한 많은 연구자들(예, Heini et al., 1992; Hartos et al., 2000) 등의 연구에서도 감각추구성향과 운전속도간의 의미 있는 관계가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감각추구성향이 높은 운전자는 성향이 낮은 운전자보다 사고를 더 많이 내며, 음주운전 사고의 비율이 특히 높았다. 예를 들어 Heini 등(1992)은 감각추구성향이 높은 사람의 52%가 한번 혹은 그 이상의 사고를 낸 반면에 감각추구성향이 낮은 사람 가운데는 24%가 사고를 냈다고 하였다. 그리고 Donovan 등(1991)에 의하면, 공격적인 운전이나 경쟁적인 속도내기 운전태도를 보이는 남성과 음주운전을 하는 남성들은 감각추구성향과 공격성, 적대감 등이 일반 운전자보다 높았으며, 정서적인 통제수준이 더 낮았다. 같은 맥락에서 Donovan 등(1991)은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남성들 가운데 감각추구성향과 공격-적대 모두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낸 사람들의 경우 특별히 더 많은 사고를 냈다고 보고하였다.

이밖에 감각추구성향과 범죄 및 도박과의 관련성을 입증한 연구들도 있다. Horvath와 Zuckerman(1993)의 연구에 의하면, 감각추구성향 전체점수는 비록 심각한 범죄는 아닐지라도 대학생들의 실제적인 범죄 행동과 높은 상관($r=.53$)을 보여 주었다. Kafrey(1982)는 어린이(6-10세)에게 성냥가지고 놀기, 또래 혹은 어른 때리기, 훔치기, 무단결석하기 등과 같은 부정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어린이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들 중 그들이 해 본 것과 해 보지 않은 것을 지적하도록 하였다. 어린이용 감각추구성향 척도에 의한 점수는 어린이들 스스로가 보고한 반사회적 행동의 수와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감각추구성향과 범죄적 위험행동과의 관계는 상당히 일찍부터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2) 사회·환경적 요인

위험행동은 개인 내적 요인 뿐만 아니라 사회·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는다. 경제적 빈곤, 불안정한 이웃과 학교, 부정적인 또래 압력, 부모의 부적절한 사회적 지지 등은 모두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위험요소들이다. 여기서는 이 가운데 대표적인 몇 가지 요소들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또래의 일탈행동과 또래 압력 등을 포함하는 부정적 또래행동은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예를 들면, 약물사용 또래와 관련되어 있는 청소년들은 스스로 약물을 사용할 가능성이 더 많다(Hawkins et al., 1992; Stacy et al., 1992). 그리고 Simons 등(1996)은 일탈 또래와 어울리는 청소년들이 더 많은 디스트레스와 행동문제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청소년들이 그들 또래의 행동과 압력에 매우 민감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므로 행동문제와 약물남용 등과 같은 부정적 행동에 개입하고 있는 또래나 그런 행동에 개입하도록 다른 아이들을 자극하는 또래들은 청소년들의 위험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또래집단에 적응하기 위해 위험행동을 선택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험행동을 시작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이 비슷하게 행동하는 또래 청소년들에 이끌려서 위험행동을 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둘째, 지각된 또래규준과 또래와의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영향을 준다. 이것은 특히 청소년의 성 행동과 높은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데, 많은 연구들에 의하면 또래들의 성적 태도 및 행동에 대한 개인의 지각이 청소년들의 성적 위험행동을 예측해 준다. 그리고 섹스나 콘돔사용에 대한 또래와의 의사소통과 지각된 또래규준은 그들의 실제 성 행동이나 콘돔사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Whitaker & Miller, 2000). DiClemente(1991)는 또래들이 콘돔 사용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고 지각하는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5배나 더 많이 콘돔을 사용하

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한편, 청소년의 성적 위험행동을 예측해 주는 요소로 지각된 또래규준과 함께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많이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성적 위험행동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또래 규준에 대한 지각이 성적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중재하는 역할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Whitaker & Miller, 2000). 따라서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또래규준과 위험행동간의 관계를 완충해 주는 보호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부모의 감시와 통제 결여는 약물 위험과 운전 위험, 폭력위험, 성적 위험 등과 관계가 있다. 예를 들면, 청소년 음주에 대한 부모의 낮은 각성 수준과 청소년 운전에 대한 부모의 통제 부족은 청소년의 위험 운전 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Whitaker & Miller, 2000). 그리고 청소년 자녀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허용적인 양육방식이나 비밀관된 훈육은 청소년들의 폭력위험을 증가시킨다(Farrington, 1989). 예컨대, 부모의 양육방식이 지나치게 허용적일 경우 청소년 자녀는 부모가 자신에게 무관심하거나 냉대하고 있는 것으로 지각할 수 있으며 민주적인 양육방식 또한 의사결정 능력이 미숙한 청소년들에게 인지적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한편 폭력적이거나 강압적인 부모와 비밀관된 양육태도는 청소년들에게 강한 분노와 충동성, 정서적 혼란 등을 야기시킬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부모의 권위적이고 일관된 양육태도는 청소년 자녀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높여주며, 극단적인 위험행동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청소년들이 방과후나 방학 동안 가정 밖에서 성인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 또한 성인의 감시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은 사회의 부정적인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으며, 외로움과 고립 및 공포를 가질 수 있다. Galambo와 Maggs(1991)는 성인이 없는 상태에서 집밖에서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의 경우 반사회적 또래 압력을 수용하거나 문제행동에 개입할 가능성이 더 많다고 하였으며, Muller(1995)는 이들이 높은 수준의 약물 사용과 보다 낮은 수준의 학업성취를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3) 보호적 요인

보호적 요인은 위험행동으로부터 잠정적인 부정적 결과를 감소 또는 차단시키거나 위험행동에 대한 위험요인의 부정적인 효과를 중재 또는 완충해 주는 역할을 한다. 지금까지 경험적 연구들에서 밝혀진 보호적 요인들은 개인의 적극적 대처능력, 부모의 권위적인 양육태도, 부모에 의한 수용성, 부모-청소년간의 의사소통, 또래 수용성, 인습적인 행동에 개입하고 있는 친구, 가족과 친척, 이웃 등과 같은 보호적 성인의 존재, 학교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 적극적 대처능력 등이다(Steinhausen & Winkler, 2001; Voydanoff & Donnelly, 1999). 이와 같은 보호적 요인은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역할모형이 되며, 또한 사회적 지지의 원천을 제공한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감시(monitoring)와 통제(control)는 청소년 위험행동의 가장 강력한 보호적 요인이다. 부모의 양육방식은 청소년 위험행동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위험요인의 부정적 결과를 완충해 주는 기능도 수행한다. 부모의 양육방식은 부모가 자녀의 요구에 수용적이고 지지적인 방식으로 반응하는 반응성과 자녀에게 반응적인 행동을 기대하고 요구하는 요구성으로 크게 구분된다(Hartos et al., 2000). 요구적인 부모는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행동의 표준과 한계, 지침 등을 세워두고, 이 범위 내에서 그들의 자율성과 자기 의존성을 행사하도록 한다. 그러므로 부모의 감시(자녀가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것)와 통제(자녀의 행동에 대해 법칙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가 가능하며, 극단적인 위험행동의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부모의 감시와 통제는 물질사용이나 일탈 행동과 부적인 관계가 있으며, 위험한 운전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Donovan, 1991; Jessor, 1995). 특히 자동차 운전에 대한 부모의 감시, 통제는 청소년의 위험운전을 차단시킬 수 있는 강력한 보호적 요인이다.

이밖에도 부모의 권위적인 양육행동과 온정적인 태도는 청소년의 사

회적 적응 및 학교 수행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Voydanoff & Donnelly, 1999; Menaghan et al., 1997). 그리고 부모가 청소년 자녀의 친구와 그 부모를 알고 있을 때, 학업 성취도가 더 높다는 연구결과(Furstenberg & Hughes, 1995)도 있다. 또한 부모의 통제와 수용성은 방과 후 성인 감독의 결여와 반사회적 또래압력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중재 또는 완충해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Galambos & Maggs, 1991).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부모의 감시와 통제 그리고 권위적 양육행동은 청소년의 위험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또한 또래규준이나 또래압력이 위험행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결과를 완충해 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또래의 행동은 청소년들에게 대체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인습적 행동에 개입하고 있는 또래들과의 관계는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Jessor et al., 1995). 예를 들면, 대학진학을 계획하고 있는 친구들을 많이 갖는 것이 위험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Voydanoff & Donnelly, 1999). 대학진학을 계획하는 친구를 갖는 것은 학업 성취도에 대한 역할 모형을 제공해 주며, 또래 평가 및 친화의 긍정적인 원천을 제공한다. 그런 친구들은 또한 청소년이 성인 없이 시간을 보내는 동안 그들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에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Conger와 Elder(1994)는 또래의 사회적 지지가 특히 소녀들의 심리적 안녕(well-being)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 밖에 또래에 의한 수용성(acceptance by peers)은 외적 문제행동(폭력, 절도, 약물, 성행동 등)에 대해 보상 요인으로 작용하며, 내적 문제행동(불안, 우울, 자살충동, 섭식장애 등)에 대해서는 보호적 요인으로 작용한다(Steinhausen & Winkler, 2001).

셋째, 보호 성인들 역시 청소년의 위험행동 감소 또는 완충해 주는 역할을 한다. 부모나 가족을 비롯하여 주변에 많은 친척이나 이웃, 선생님들이 자신을 돌보아 주고 있다고 느낄 때, 이것은 청소년들에게 잠정적인 감시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과 사회적 지지요인이

된다. Conger와 Elder(1994)는 성인의 높은 사회적 지지가 소년들의 반사회적 행동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내며, 소녀들에게는 경제적 압력이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효과를 중재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사회 지지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위험한 조건에 노출될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타인과의 긍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폭력위험에 대한 보호적 요인이 된다. Stevenson(1998)은 아프리카계 미국 청소년 표본 집단에서, 친족의 사회적 지지는 높은 위험의 도시환경에서 청소년의 분노 억압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Jessor 등(1995)은 성인들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보고한 청소년의 경우 문제행동의 개입 가능성이 적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자신을 돌보아 주는 성인들의 존재 여부는 인습적인 행동을 하는 친구들을 사귀고 있는 것과 더불어 부정적 또래행동이나 지각된 또래규준 등의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으며, 또한 위험행동의 부정적인 결과를 감소 또는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부모-청소년간의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또래규준의 부정적인 결과를 완충해 주는 역할을 한다. Whitaker와 Miller(2000)는 청소년의 섹스와 콘돔사용 시기에 대한 부모-청소년간의 의사소통이 또래 규준과 성 행동간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섹스 및 콘돔사용에 대한 또래 규준과 부모와의 의사소통 모두가 성적 행동과 관련이 있었지만, 또래의 규준과 성 행동간의 관계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의해 조절되었다. 즉, 또래규준에 대한 지각은 섹스나 콘돔사용에 대하여 부모와 의사소통을 하지 않은 청소년들의 성 문제행동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들은 부모-청소년간의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성적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거나, 또래의 집단규준이 청소년의 성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왔다(DiClements, 1991; Miller et al., 1998). 그러나 Whitakerdhk Miller(2000)의 연구는 양 변인의 상호작용을 밝힘으로써, 부모-청소년 의사소통의 중재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그들은 성에 대한 부모-청소년 의사소통이 또래규준의 성 행동에 대한 영향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성에 대한 부모-청소년 의사소통을 통해 부모는 또래가 제공할 수 없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Painter, 1997), 성에 대한 부모의 가치를 강화시킬 수 있다(Jaccard et al., 2000). 즉, 부모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얻게 될 경우 또래가 제공하는 부정확한 정보에 의존해서 행동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으며, 또래의 가치보다 부모의 가치에 더 일치되는 방향으로 성 행동을 할 것이다.

다섯째, 청소년들의 학교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은 위험행동의 부정적 결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 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성향, 학교와의 관계성, 학교의 질에 대한 높은 인식은 학업성취와 정신건강을 예언해 준다(Furstenberg & Hughes, 1995). 그리고 학교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은 성인(교사, 부모)과의 관계를 촉진시키고, 학교의 학업적 풍토를 조성하도록 만들며, 부정적인 또래행동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도록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따라서 이것은 부정적인 또래행동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는 보호적 요인에 속한다.

이 밖에도 청소년들의 단체활동 참여 또한 위험행동의 보호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Voydanoff & Donnelly, 1999). 즉, 집단 스포츠 활동, 교회나 절에서 실시되는 특별활동, 스카우트나 4-H 활동, 예능활동 등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부정적 또래압력이나 또래규준의 영향을 더 적게 받으며, 또한 성인의 감시 없이 시간을 낭비함으로써 파생되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Ⅲ. 조사연구

1. 대상

본 조사의 대상은 중·고등학교 남녀 학생 전체 600명이며, 이들은 대구 지역의 중학교 남녀 각각 2개교의 4개 학급과 인문계 고등학교 남녀 각각 2개교의 4개 학급을 임의 표집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남자 중학교의 경우 2개교를 임의 선정하고 각 학교에서 2개 학급씩 4개 학급을 무선표집하여 이들 학급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자 중학교와 인문계 남녀 고등학교를 표집하였으며, 이들 모두는 해당 학교의 2학년이었다. 따라서 중학교의 평균 연령은 14.4세($SD=0.82$)이고, 고등학교는 17.6세($SD=1.27$)였다.

이들 가운데 설문지 전체 문항에 응답을 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한 39명의 자료는 코딩 작업에서 제외시켰다. 그러므로 자료분석의 실제 대상자는 561명이며, 이들의 집단별 분포는 다음의 <표 Ⅲ-1>과 같다.

<표 Ⅲ-1> 자료분석 대상자의 각 집단별 분포

성별/학교	중	고	계
남	137	137	274
여	142	145	287
전체	279	282	561

2. 도구

1) 위험행동 척도

Gullone, Moss 및 Boyd(2000)가 요인분석을 통해 개발한 ARQ(the Adolescent Risk-Taking Questionnaire)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번안·수정하여 사용하였다(부록 1 참조). Gullone 등(2000)은 주 요인분석과 확증요인분석을 통해 4개의 변인과 22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5점 평정척도를 개발하였다. 이들이 분석한 4개의 변인은 모험추구행동, 반항적 행동, 무모한 행동, 반사회적 행동이며, 본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전체 위험행동과 더불어 각 하위변인별 위험행동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 과정에서 검증된 도구의 신뢰도는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Cronbach's $\alpha = .71$).

2) 관련 요인 척도

본 연구에서는 위험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요인들을 미리 설정해 두고, 이들 요인들에 대한 피험자의 반응에 따라 위험행동의 차이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청소년의 위험행동 관련 요인은 매우 많겠지만, 본 연구에서 가정한 요인들은 맥락적 요인 4개와 문제행동 요인 7개로써 전체 11개의 선다형 문항이다.

맥락적 요인에는 일상생활에 대한 지각, 추구행동, 부모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이며, 문제행동 요인에는 내적 문제에 우울과 자살생각, 그리고 외적 문제에 흡연, 음주, 성관계가 포함되었다.

3. 자료분석

본 조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각 집단별로 분류한 뒤, 위험행동의 집단간 평균차의 유의도를 검증하기 위해 변량분석을 적용하였다.

4. 결과

본 조사의 결과를 인구통계학적 분석, 맥락적 요인과의 관계, 문제행동 요인과의 관계의 순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1) 인구통계학적 분석

위험행동 전체에 대한 성별, 학교급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각 집단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의 <표 III-2>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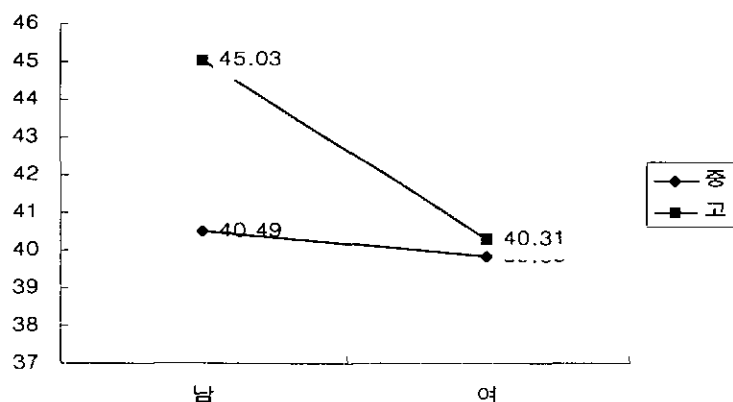
<표 III-2> 위험행동 전체에 대한 각 집단의 평균과 표준편차						
	중		고		전체	
	M	SD	M	SD	M	SD
남	40.49	11.23	45.03	12.94	42.76	12.30
여	39.83	8.96	40.31	9.53	40.07	9.24
전체	40.15	10.13	42.60	11.54		

위의 <표 III-2>에 기초하여, 각 집단간 위험행동의 평균차의 유의도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의 <표 III-3>과 같다.

<표 III-3> 위험행동 전체 득점에 대한 집단간 평균차 검증

Source	df	SS	MS	F	P
성 (A)	1	1014.0186	1014.0186	8.77	0.0032
학교(B)	1	843.3811	843.3811	7.30	0.0071
A x B	1	589.6333	589.6333	5.10	0.0243
오 차	557	64382.0292	115.5871		
전 체	560	66829.0623			

위의 <표 III-3>에 의하면, 위험행동 전체 득점은 남녀간과 학교급간에 각각 1% 수준의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성별과 학교급간에 5% 수준의 유의한 상호작용이 있다. 따라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그리고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위험행동에 대한 지각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상호작용에 대한 그림은 다음의 <그림 III-1>와 같다.



<그림 III-1> 위험행동 전체 득점에 대한 성별과 학교급간의 상호작용

위의 그림에 의하면, 중학교의 경우 남녀간에 큰 차이가 없으나 고등학교에서는 매우 큰 차이가 있으며, 남학생의 위험행동 증가율이 여학생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체 위험행동은 남학생의 경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매우 급상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위험행동의 각 하위변인(모험추구, 반항적, 무모한, 반사회적)에 대한 집단간 평균·표준편차와 차이검증의 결과는 다음의 <표 III-4>와 같다.

<표 III-4> 위험행동의 각 하위변인에 대한 집단간 차이

()안은 표준편차

		중	고	전체	F
모험적	남	20.59(5.15)	20.40(5.43)	20.49(5.28)	성별(A) = 3.01
	여	19.78(4.65)	19.68(5.44)	19.73(5.06)	학교(B) = 0.11
	전체	20.18(4.91)	20.03(5.44)		A x B = 0.01
반항적	남	7.07(2.81)	9.40(3.79)	8.24(3.53)	성별(A) = 1.17
	여	8.31(3.51)	8.80(3.75)	8.56(3.64)	학교(B) = 22.14 **
	전체	7.70(3.24)	9.09(3.78)		A x B = 9.78 **
무모한	남	6.18(2.70)	7.82(6.86)	7.00(5.27)	성별(A) = 6.92 **
	여	6.30(4.48)	5.77(1.73)	6.03(3.39)	학교(B) = 2.05
	전체	6.24(3.71)	6.77(5.03)		A x B = 8.74 **
반사회	남	7.45(4.12)	8.95(4.19)	8.20(4.21)	성별(A) = 44.91 **
	여	6.40(3.42)	6.06(1.71)	6.23(2.69)	학교(B) = 3.40
	전체	6.92(3.81)	7.46(3.48)		A x B = 9.91 **

** P < .01

위의 <표 III-4>에 의하면, 위험행동 가운데 먼저 모험추구 행동은 성별간에 그리고 학교급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으며, 상호작용도 없다. 그러므로 모험추구 행동은 남녀 학생간에 그리고 중학교와 고등학교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반항적 행동은 성별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학교급간에 1% 수준의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또한 성별과 학교급간의 유의한 상호작용이 있다. 그러므로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반항적 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림 부록2-1>의 상호작용 그림에 의하면, 중학교의 경우 여학생이, 고등학교의 경우 남학생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점수를 보여 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남학생들은 중학교시기에 여학생보다 오히려 더 낮은 반항적 행동을 보이다가 고등학교시기에 여학생보다 더 높은 반항적 행동을 보임으로써, 남학생의 발달적 변화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셋째, 무모한 행동은 남녀간에 1% 수준의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학교급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 그리고 성별과 학교급간에 1% 수준의 유의한 상호작용이 있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무모한 행동을 더 많이 보이지만, 학교급간의 발달적 변화는 없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그림 부록2-2>의 상호작용 그림에 의하면, 중학교에서는 여학생의 무모한 행동이 다소 더 높지만, 고등학교에서는 남학생의 무모한 행동이 급작스럽게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여학생의 경우 학교급의 상승에 따라 무모한 행동이 줄어들지만, 남학생은 급상승 곡선을 나타냄으로써 남녀간에 커다란 대조를 보여 주고 있다.

넷째, 반사회적 행동은 남녀간에 1% 수준의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학교급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 그리고 성별과 학교급간에 1% 수준의 유의한 상호작용이 있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반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보이며, 학교급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으나 고등학교가 중학교보다 다소 높은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P = .0656$). 한편

상호작용에 대한 <그림 부록2-3>에 의하면, 남학생의 경우 중학교와 고등학교간에 반사회적 행동이 급상승하지만, 여학생은 중학교와 고등학교간에 미묘한 감소가 나타난다. 따라서 반사회적 행동 역시 청소년기 동안 남학생들에게 급격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맥락적 요인과의 관계

청소년의 맥락적 요인에 대한 지각을 일상생활에 대한 지각, 추구하는 행동, 부모님과과의 관계, 친구들과와의 관계로 구분하여, 각 요인별 위험행동의 차이를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 III-5>와 같다.

<표 III-5> 생태학적 요인의 지각에 따른 전체 위험행동의 차이

()안은 표준편차

일상생활	구분	유쾌	자신감	따분	우울	기타	F	개별비교
	n	212	56	142	72	79	0.23	
	M	41.17	41.37	42.09	41.27	40.79		
	SD	10.41	14.53	10.27	11.61	9.96		
추구행동	구분	모험 (A)	이성적 (B)	정서적 (C)	반항적 (D)	기타 (E)	F	개별비교
	n	255	118	96	61	31	5.07 **	D-B
	M	42.21	38.44	40.20	45.49	41.35		A-B
	SD	9.82	10.67	10.11	13.73	13.62		

부모 와의 관계	구분	허용 (A)	민주적 (B)	감시 (C)	통제 (D)	억압 (E)	무관심 (F)	기타 (G)	F	개별비교
	n	90	274	80	71	8	11	27	3.91**	F-B,C,A,D
	M	42.77	39.49	42.65	43.05	48.50	50.00	42.18		E-B,C,A,D
	SD	12.30	10.59	10.94	10.16	13.07	8.27	7.39		
친구 와의 관계	구분	무관심 (A)	부정적 집단압력 (B)	보통 (C)	또래 수용성 (D)	참여적 (E)	기타 (F)	F	개별비교	
	n	18	8	155	221	146	13	1.98		
	M	37.38	50.37	42.09	41.10	41.34	38.07			
	SD	8.81	11.92	12.11	10.97	9.50	9.70			

** P < .01

위의 <표 III-5>에 의하면, 평소에 자신이 추구하는 행동에 대한 지각과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지각에 있어서 1% 수준의 유의한 차이가 있다. 즉, '반항적 행동'과 '모험적 행동'을 많이 추구하는 청소년들이 '지적이고 이성적인 행동'을 많이 추구하는 청소년들보다 위험행동을 더 많이 선택하며, 그리고 부모와의 양육태도에 대한 지각에 있어서 부모님들이 '무관심하거나 냉대적인 태도를 보일 때'와 '폭력이나 욕설을 많이 사용하며 억압적인 태도를 보일 때'가 민주적, 감시적, 허용적, 통제적 양육태도를 보일 때보다 위험행동을 의미있게 더 많이 선택한다.

그러나 일상생활에 대한 지각과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지각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 특히 친구와의 관계 지각에 있어서 평균특점의 크기만을 고려해 볼 때, 부정적 또래압력이 작용한다고 지각할 때가 그 밖의 친구관계 유형에 대해서보다 위험행동을 높게 선택하는 경향이 있지만, 빈도 수의 큰 차이로 인하여 통계적 차이는 검증되지 않

았다. 그리고 위험행동의 각 하위요인별(모험추구, 반항적, 무모한, 반사회적)로 맥락적 요인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나, 결과는 위험행동 전체에 대한 것과 유사하였다.

3) 문제행동 요인과의 관계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을 내적 문제요인(우울, 자살생각)과 외적 문제요인(흡연, 음주, 성 관계)으로 구분하여, 각 요인에 대한 피험자의 경험 여부에 따른 위험행동의 차이를 분석해 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표 III-6>과 같다.

<표 III-6> 문제요인별 경험 유무에 따른 전체 위험행동의 차이

()안은 표준편차

		경험	무경험	F
우울	n	136	398	
	M(SD)	44.80(11.52)	39.98(10.36)	23.38 **
자살생각	n	156	405	
	M(SD)	44.64(11.57)	40.13(10.40)	19.90 **
흡연	n	119	442	
	M(SD)	50.82(13.46)	38.84(8.51)	140.86 **
음주	n	291	270	
	M(SD)	45.31(11.70)	37.15(8.13)	90.77 **
성관계	n	19	541	
	M(SD)	60.84(17.28)	40.77(9.85)	71.33 **

** $P < .01$

위의 <표 III-6>에 의하면, 청소년의 위험행동은 5개의 문제행동 요인 각각의 경험 유무간에 1% 수준의 유의한 차이가 있다. 즉, 우울, 자살생각과 같은 내적 문제요인을 경험한 집단이 이를 경험하지 않은 집단보다 그리고 흡연, 음주, 성 관계와 같은 외적 문제요인을 경험한 집단이 이를 경험하지 않은 집단보다 각각 더 높은 위험행동을 나타내었다. 그러므로 우울을 겪고 있거나 자살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보고한 청소년들과 흡연, 음주, 성 관계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보고한 청소년들이 이들 각 요인을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위험행동에 더 많이 선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위험행동의 각 하위변인(모험추구, 반항적, 무모한, 반사회적) 별로 5가지 문제행동 각각의 경험유무간 차이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하위변인에 있어서 집단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모험추구 변인에 대해서는 우울 경험유무간 5% 수준($F=4.38$), 자살생각 유무간 1% 수준($F=7.03$), 흡연 유무간 0.1% 수준($F=21.42$), 음주 유무간 0.1% 수준($F=29.64$), 성 관계 유무간 5% 수준($F=4.65$)의 유의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모험추구 위험행동은 청소년의 내적·외적 문제행동과 의미있는 관계가 있다.

둘째, 반항적 행동 변인에 대해서는 우울 경험유무간 0.1% 수준($F=45.65$), 자살생각 유무간 0.1% 수준($F=37.08$), 흡연 유무간 0.1% 수준($F=229.50$), 음주 유무간 0.1% 수준($F=159.06$), 성 관계 유무간 0.1% 수준($F=39.21$)의 유의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반항적 행동은 내적·외적 문제행동과 의미있는 관계가 있다.

셋째, 무모한 행동에 대해서는 우울 경험 유무간($F=1.23$)과 자살생각 유무간($F=1.55$)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 그러나 외적 문제요인에 속하는 흡연 경험유무간에 0.1% 수준($F=50.47$), 음주 경험유무간 1% 수준($F=9.88$), 성관계 경험유무간 0.1% 수준($F=45.39$)의 유의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무모한 위험행동의 경우 외적 문제행동의 경험과 더 많은

관계가 있다.

넷째, 반사회적 행동에 대해서는 우울 경험 유무간($F=2.31$)에 유의한 차이가 없으며, 그 밖에 자살생각($F=5.81$), 흡연 유무간($F=62.90$), 음주 유무간($F=15.92$), 성관계 유무간(39.44)에 각각 1% 이상의 유의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반사회적 행동은 자살생각, 흡연, 음주, 성 관계와 의미있는 관계가 있다.

5. 해석 및 논의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함과 동시에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이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험행동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그리고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더 많이 선택하며, 남학생의 위험행동 증가율이 여학생보다 더 높다.

이를 위험행동의 하위변인별로 살펴보면, 먼저 모험추구 행동의 경우 남녀간에 그리고 학교급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없다. 둘째, 반항적 행동은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더 많이 선택하며, 중학생의 경우 여학생이 그리고 고등학생의 경우 남학생의 위험행동이 더 높다. 다시 말하면, 남학생들은 중학교시기에 여학생보다 오히려 더 낮은 반항적 행동을 보이다가 고등학교시기에 여학생보다 더 높은 반항적 행동을 보임으로써, 남학생의 발달적 변화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사춘기 시작이 여학생들에게 더 빨리 나타남으로써 중학교의 경우 여학생의 반항적 행동이 더 많이 나타나지만, 남학생의 경우 사회적 환경의 영향과 개인 내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고등학교 시기에 반항적 행동이 급상승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Arnett, 1998; Voydanoff & Donnelly, 1999). 이것은 청소년기 동안 반항적 행동의 발달적 경향성이 남녀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셋째, 무모한 행동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이 선택하며, 중학교에서는 여학생의 무모한 행동이 다소 더 높지만, 고등학교에서는 남학생의 무모한 행동이 급작스럽게 높아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여학생의 경우 학교급의 상승에 따라 무모한 행동이 줄어들지만, 남학생은 급상승 곡선을 나타냄으로써 남녀간에 커다란 대조를 보여 주고 있다. 이 또한 청소년기 동안 위험행동의 발달적 경향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다(한상철, 1998). 넷째, 반사회적 행동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이 선택하며, 고등학교가 중학교보다 다소 높은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남학생의 경우 중학교와 고등학교간에 급상승하지만, 여학생은 중학교와 고등학교간에 미묘한 감소가 나타난다. 따라서 반사회적 행동 역시 청소년기 동안 발달적 경향성이 있으며, 이와 같은 발달은 남녀간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위험행동은 일상생활 내 맥락적 요인에 대한 개인의 지각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가 있다. 특히 자신이 평소에 어떤 행동을 추구하는가에 대한 지각과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지각이 위험행동 선택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결과는 Hartos 등(2000), Voydanoff와 Donnelly(1999), Steinhausen(2001) 등의 연구와 일치하며,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위험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시사한다. 한편, Borum(2000)과 Voydanoff 등(1999)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또래의 부정적인 압력과 또래 수용성 등의 변인은 본 연구에서 평균독점의 큰 차이를 보이고는 있지만, 이를 선택한 학생들의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통계적인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보다 체계적인 연구설계를 적용하여 재검증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청소년의 위험행동은 5개의 문제행동 요인 각각의 경험 유무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있다. 즉, 우울, 자살생각과 같은 내적 문제요인을 경험한 집단이 이를 경험하지 않은 집단보다 그리고 흡연, 음주, 성관계와 같은 외적 문제요인을 경험한 집단이 이를 경험하지 않은 집단보다 각각

더 높은 위험행동을 나타내었다. 그러므로 우울을 겪고 있거나 자살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보고한 청소년들과 흡연, 음주, 성관계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보고한 청소년들이 이들 각 요인을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위험행동에 더 많이 개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간편 척도를 이용하여 문제행동 경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위험행동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나, 실제로는 위험행동에 대한 지각 정도가 높을수록 내적·외적 문제행동에 더 많이 개입할 것으로 생각된다(Irwin & Millsein, 1986; Selman 등, 1996).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요망된다.

IV. 위험행동 모형

1. 위험행동의 상호작용적 모형

Irwin과 Millstein(1986)은 위험행동을 설명하기 위하여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이론에 기초한 상호작용적 모형을 제안하였다(그림 6 참조). 이 모형에 의하면, 위험행동은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 및 상황적 요인의 복합적 상호작용에 의해 유발된다. 그리고 이들 각각은 또 다시 위험행동의 원인 요인과 보호 요인으로 구분되는데, 위험요인들에 의해 위험행동이 유발될 수도 있지만 또한 보호요인에 의해 위험행동이 예방 또는 감소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내적 요인에는 위험행동의 생물학적 원인과 심리학적 원인 및 이와 대립되는 보호적 요인이 있다. 연구자들이 제안한 위험행동의 원인에는 유전적 소인, 남자, 호르몬, 감각추구성향, 인지 미성숙, 우울증, 낮은 자존심, 독립 추구성향, 발달의 부조화 등이 포함되며, 보호요인에는 정상적인 정동상태, 자존심, 성취에 대한 높은 가치, 인지적 성숙, 종교성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외적 요인에 포함되는 위험요인은 또래의 위험행동 수용, 부모감시 및 통제 소홀, 학교 실패, 가난, 부모의 위험행동 개입 등이 있으며, 보호적 요인은 학업적 성취, 건전한 가족, 부모의 지지, 또래의 위험행동 부정, 교회 참석, 학교활동 참여, 권위적인 양육 등이 있다. 한편 위험행동이 유발되는 상황요인으로 또래의 위험행동 시작, 사회적 압력, 학교전학, 가족 해체, 성적 행동시작, 약물사용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위험행동 소인

보호요인

내적 요인

유전소인, 남성, 불균형적인
사춘기 시작, 호르몬, 감각추구 → 정상 정동상태, 자기 존중감
성향, 인지적 미성숙, 우울증 ← 성취에 높은 가치, 종교성
낮은 자존심, 독립추구성향 ← 인지적 성숙
↑ ↓

외적 요인

동료의 위험행동 수용
부모 감독 소홀, 학교 실패 → 학업성취, 건전한 가족
부모의 지지,
동료의 위험행동 부정
가난, 부모의 위험행동 ← 학교활동 참여, 권위적 양육
↓

유발요인(상황요인)

또래의 위험행동 시작, 사회적 압력
학교전학, 가족 해체
성적 행동 시작, 약물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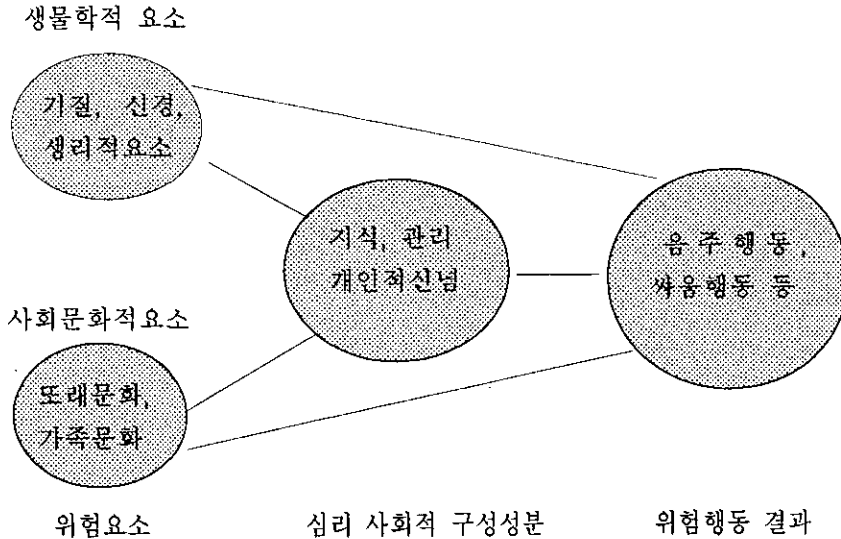
<그림 IV-1> 위험행동의 상호작용 모형(Irwin & Millstein, 1986)

Irwin과 Millstein(1986)이 제안한 상호작용적 모형은 청소년 위험행동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준다. 그러나 내적·외적 소인이 상황적 요인과 결합함 명확한 이해를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다. 보호적 요인을 단지 위험요인(소인)과 대립되는 차원으로만 해석하고 있음으로서 위험행동을 감소시키거나 위험요인의 부정적 효과를 중재하는 과정을 설

명해 주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이 모형은 위험 소인과 보호적 요인 및 상황적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해 주고 있지만, 이들 각 요인들이 경험적으로 검증된 것이 아니라 연구자의 주관에 의해 선택된 것이기 때문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호작용 모형은 위험행동의 발생과정을 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을 뿐, 동적인 과정을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 위험행동의 발생은 개인의 지각이나 신념에 따라 크게 변화된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요인들간의 상호 관련성 뿐만 아니라 상호작용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2. 위험행동의 발달적 모형

Selman과 그의 동료들(1985, 1992, 1996)은 10-16세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발달적 관점에서 위험행동을 연구하였다. 이들은 전 청소년기와 초기 청소년기가 위험행동 장면에 노출될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관련 연구의 최적기라고 주장하고, 이 시기 동안의 안전과 성공적인 적응은 청소년기 전체 뿐만 아니라 성인기 발달에까지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와 더불어 그들은 위험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을 제안하였는데, 이 모형은 생물학적 요소와 사회 문화적 요소 그리고 심리 사회적 요소의 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때 생물학적 및 사회 문화적 요소는 심리 사회적 체계를 통해 여과된 후에 위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조건이고, 심리 사회적 요소는 선행 요건과 후행 요건간의 상호작용을 중재함으로써 개인의 행동을 의미롭게 조형하는 통합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Levitt et al., 1996).



<그림 IV-2> 위험행동의 발달적 모형(Selman, et als., 1992)

위의 <그림 IV-2>에는 위험요소와 위험행동간에 두 개의 가설적 구조가 있다. 점선은 위험요소가 위험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고, 실선은 심리 사회적 구성성분을 경유하여 위험행동에 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심리 사회적 요소를 경유하지 않는 것은 생물학적 요소나 사회 문화적 요소가 극단적인 성격을 지님으로써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컨대 생물학적으로 심한 충동성이나 억제된 기질, 기형적인 뇌 구조 등을 가졌거나 사회 문화적으로 심각한 가난, 약물 의존, 범죄우범 지역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 개인의 심리 사회적 구성성분이 중재되지 않은 채 이러한 위험요소가 곧바로 위험행동에 영향을 주게 된다.

반면에 심리 사회적 구성성분은 개인의 생물학적 성향과 사회 문화적 요인을 통합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위험행동에 영향을 준다. 일반적으로

로 사춘기 청소년의 호르몬의 변화나 신체·생리적 변화와 같은 생물학적 성향과 부정적인 교우관계나 가족간의 불화와 같은 사회 문화적 요소가 곧바로 위험행동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심리 사회적 변인 즉, 위험에 대한 지식과 대인관계기술 그리고 위험행동에 대한 개인의 의지와 신념이 중재작용을 함으로써 개인이 실제 위험행동에 개입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위험행동을 예방할 수도 있다(한상철, 1998). 이 모형을 발달적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행동이 청소년의 심리 사회적 영역의 발달 즉, 친구나 부모와의 대인관계기술의 발달과 함께 변화된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서이다.

구체적으로 심리 사회적 영역에 포함된 지식은 위험에 대한 사실적 지식과 개념적 이해 수준을 뜻한다. 흡연이나 음주가 인체에 해롭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은 사실적 지식이며, 사람들은 모두 가치가 있고 다른 사람을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으며 싸움은 결코 안전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개념적 이해 수준에 해당된다. 물론 사실적 지식이나 개념적 이해수준이 높은 청소년이 위험행동의 개입 가능성이 적다. 그러나 청소년들에게 사실적 지식이나 개념적 이해 수준을 높임으로써 위험행동을 예방하고자 의도된 많은 프로그램들은 기대만큼의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Levitt & Selman, 1996).

둘째, 관리기술은 위험행동과 관련하여 개인이 가지는 대인관계 기술을 의미한다. 관리란 개인이 실제 위험행동을 선택할 때 다른 사람과 문제를 공유하고 갈등에 대한 협상을 전개해 나가는 방식이다. 사람들이 실제로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은 위험행동을 채택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인기술이 보다 발달된 사람은 자아와 다른 사람의 요구를 분화하고, 위험 관리를 할 때 그들 자신의 요구를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통합한다. 이들은 생활의 다분함이나 스트레스를 적게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을 경험하더라도 감각적 흥분을 추구하기보다 다양한 상황을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조정하고 통합할 수 있음으로써 갈

등을 쉽게 극복할 수 있다. 따라서 관리기술은 위험행동에 대처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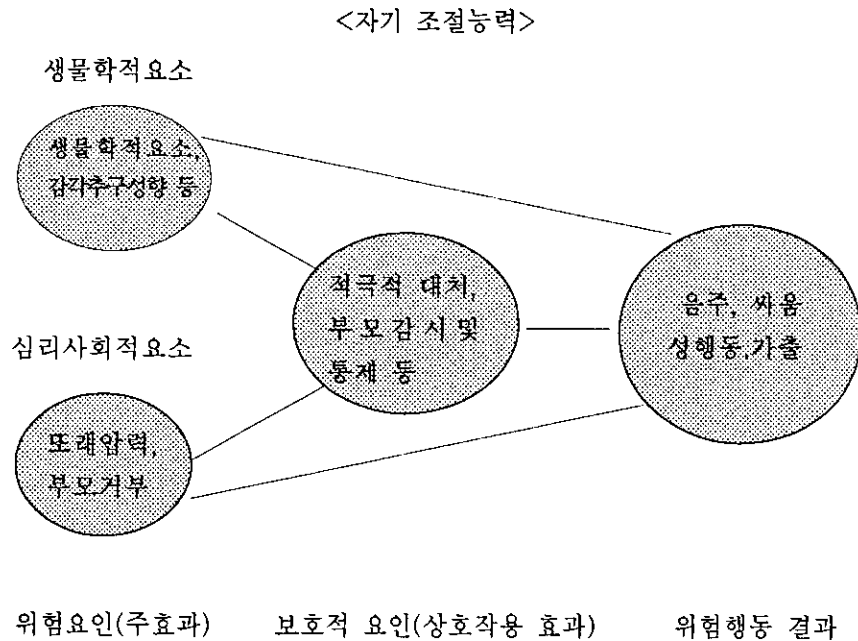
셋째, 개인적 의미는 위험행동에 대한 개입 여부를 결정할 때, 그 행동에 대한 개인의 신념, 가치, 태도, 동기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어떤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위험을 수반하는 행동에 참가하는데 대한 주관적인 중요성을 결정하고, 위험에 대한 지식 및 이해와 관리기술을 통합하는 역할을 한다(Levitt & Selman, 1996). 이와 같은 신념은 위험요인에 대한 개인의 지각에 영향을 주며, 지각은 또 다시 대인관계기술에 영향을 주는 만큼 심리 사회적 구성성분은 실제로 상호 통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Selman 등(1992)은 이들 심리 사회적 구성성분 가운데 관리기술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관리기술을 대인협상전략이라고 하고, 이는 구조적-발달적 접근(탈중심화 능력)과 기능적 접근(조망수용능력, 대인문제해결능력)에 의해 개선될 수 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교우관계나 가족관계에서 자신과 타인의 요구를 분화시킬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관점을 수용할 수 있으며, 그리고 합리적인 갈등협상전략을 사용할 수 있을 때 관리기술이 발달되며, 이것은 곧 청소년으로 하여금 그들의 위험행동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이 모형은 청소년의 위험행동 선택과정을 역동적인 구조로서 설명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위험요인에 대한 개인의 지각과 대인관계기술 즉, 친구나 부모와의 관계기술이 위험행동을 감소 또는 예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때 부모의 감시와 통제를 포함한 권위적인 양육행동이나 부모-청소년 의사소통, 긍정적인 학교환경, 단체활동 참여 등의 보호적 요소들은 청소년의 대인관계기술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대인협상전략의 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모형은 너무나 추상적이며, 위험요인과 보호적 요인과의 관련성을 명료하게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다. 지식과 관리 그리고 개인적 신념으로 구성된 심리 사회적 구

성성분이 보호적 요인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대인관계기술이 곧바로 보호적 요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들 요인들과의 관계를 더욱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elman 등(1992)의 모형을 일부 수정하여 위험행동에 대한 발달적 통합모형을 제안하고자 한다(그림 IV-3 참조).



<그림 IV-3> 청소년 위험행동의 발달적 모형

위의 <그림 IV-3>는 Selman 등(1992, 1996)이 제안한 모형과 외형상으로 큰 차이가 없다. 기존 모형과의 차이는 ‘심리 사회적 구성요소’를 ‘보호적 요인’으로 전환시킨 것과 각 변인 속에 일부 요인들을 보편성이 더 높은 요인으로 변경시킨 것이다. 이 모형에 의하면, 먼저 청소년의 위험행동은 발달과정상 생물학적·심리 사회적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청소년기 특히 초기 청소년기에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점선으로 연결된 위험요인과 위험행동의 결과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위험요인이 강하게 작용할수록 부정적인 위험행동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위험요인의 제거는 위험행동의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킨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Steinhausen과 Winkler (2001)의 모형에 기초할 때, 이것은 위험요인과 보상요인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본 모형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위험요인으로 간주). 그러나 위험요인의 직접적인 효과는 Selman 등(1996)의 주장과 같이 그것이 강력하고 지속적일 때 나타나며, 대부분의 경우 보호적 요인과 상호작용 관계를 통해 위험행동에 영향을 준다.

실선으로 연결된 관계를 살펴보면, 보호적 요인은 위험행동과 상호작용함으로써 완충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즉, 위험요인으로 부정적인 또래압력이 작용한다고 하여 흡연이나 싸움, 약물 등의 위험행동을 촉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 대처능력의 부족이나 부모의 거부 및 통제 부족이 함께 작용할 때 위험행동이 발생한다. 이와 반대로 보호적 요인 가운데 적극적 대처와 부모의 감시 및 통제가 적극적일 때 또래의 부정적 압력으로 인한 위험행동은 감소되거나 차단될 수 있다. 따라서 Steinhausen과 Winkler(2001)의 모형에 기초할 때, 상호작용 요인은 취약성 요인과 보호적 요인의 성격을 갖는다(본 모형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보호적 요인으로 간주).

보호적 요인의 상호작용 효과 또는 중재효과는 개인의 인지적 자기조절능력(self-regulation)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보호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관리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결국 개인이 주어진 조건 및 상황을 어떻게 지각하고 조절하는가 하는 것이 위험행동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V. 결 론

본 연구는 관련 문헌을 통해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영향을 주는 관련 요인들을 탐색하고, 이들 가운데 몇 가지 주요 요인들과 위험행동과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검증하며, 그리고 우리 나라 청소년의 위험행동 경로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발달적 모형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청소년들이 극단적인 문제행동에 개입하게 되어 건강이나 지위, 법적인 문제 등에서 어떤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처방안을 찾는데 고심하는 경향이 있다. 문제행동으로 인하여 사법처리를 받거나, 건강상의 심각한 장애를 경험하거나, 학교탈락이나 실패의 고통을 겪기 전에 위험행동을 사전에 분석하고 이를 예방 또는 감소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위험행동은 정상적인 발달적 요소이지만, 이것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때 다양한 손실과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 나라 청소년의 위험행동 성향과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위험행동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발달적 모형을 통해 위험행동의 발생 경로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는 또한 청소년 위험행동에 대한 합리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이와 같은 가정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 분석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위험행동(risk behavior)이란 일반적으로 신체적, 심리적, 법적,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는 행동을 말한다. 위험행동은 부정적인 결과와 긍정적인 결과를 모두 내포하면서 개인의 지각 또는 신념에 의해 그 방향이 결정된다.

둘째, 위험행동의 기저 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위험행동을 측정하고 분류하는데 유용한 준거가 된다. 위험행동의 범주를 분석한 결과 본 연구

에서는 Gullone 등(2000)이 제안한 4가지 범주가 가장 타당하고 설득력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들이 분석한 위험행동의 범주는 모험추구행동, 반항적 행동, 무모한 행동, 반사회적 행동이다.

셋째, 위험행동의 관련 요인으로 위험요인과 보상요인, 취약성 요인과 보호적 요인을 구분하고, 이들 각 요인의 상호 관련성을 검토하였다. 위험요인과 보상요인은 스트레스 자원과 각각 독자적으로 위험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고, 취약성 요인과 보호적 요인은 위험요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위험요인의 부정적 효과를 완충하는 변인으로 가정되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위험요인과 취약성 요인, 그리고 보상요인과 보호적 요인은 각각 상호 중복되는 성격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통적으로 위험행동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역할을 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위험요인과 보호적 요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넷째, 위험요인은 크게 개인 내적 요인과 사회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되며, 개인 내적 요인에는 유전적인 소인과 사춘기의 호르몬 변화, 불균형적인 사춘기 시작, 인지적 미성숙, 정서적 불평형, 높은 감각추구성향 등을 포함시켰다. 이 가운데 감각추구성향은 다양한 영역의 위험행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며,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단일 요인으로서 가장 강력한 예언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리고 사회 환경적 요인 가운데는 부정적 또래행동과 또래규준에 대한 부정적 지각, 부모의 감시 및 통제결여 등이 위험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 가운데 또래압력과 부모의 감시 및 통제 부족이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위험행동의 보호적 요소에는 인적 자원과 심리 사회적 자원이 있는데, 인적 자원에는 감시와 통제를 행사하고 있는 부모, 인습적인 행동에 개입하고 있는 친구, 보호적 성인(가족, 친척, 이웃 등) 등을 포함하며, 심리 사회적 자원에는 건강한 가족관계, 단체활동에의 참여, 긍정적인 학교환경 등을 포함한다. 이들 보호적 요소들은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위험요인으로 인한 부정적인 행동결과를 감소시키거나 양 변인간의 관계를 조절 또는 완충해주는 역할을 한다.

여섯째, 지역 청소년들의 위험행동 실태와 관련 변인과의 관련성을 경험적으로 검증해 보았다. 전체 50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위험행동 척도(ARQ)를 이용하여 관련 요인들의 경험 정도와 위험행동 정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위험행동은 남자가 여자보다 그리고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각각 더 높았으며,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지각에 따라 그리고 문제행동의 경험 여부에 따라 위험행동 전체와 각 하위영역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

일곱째, 선행 연구자들의 위험행동 모형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위험행동의 발달적 모형을 개발하였다. 이 모형에 의하면, 위험행동은 생물학적 요소나 심리 사회적 요소가 극단적인 성격을 지님으로써 독립적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개인의 지각과 자기조절능력의 중재 작용에 의해 보호적 요인과 상호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보호적 요인은 위험요인과 함께 작용하여 부정적인 위험행동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상호작용에 의해 위험요인의 효과를 완충해 줌으로써 위험행동의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한편 보호적 요인은 개인의 주관적인 자기조절능력에 위험요인과의 상호작용 여부와 방향을 결정한다.

마지막 여덟째, 위험행동의 발달적 모형을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추후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본 연구에서 밝혀진 위험행동의 개념적 범주에 근거하여 우리 나라 청소년의 특성에 적합한 위험행동 측정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청소년 위험행동의 원인과 보호적 요인과의 관계를 발달적 모형에 기초하여 경험적으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선행연구의 결과를 확장하기 위한 시도이기도 하지만, 우리 나라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지도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참 고 문 헌

- 한상철 (1998). 청소년기의 위험행동 : 교우관계 및 가족역할 변화와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5, 3, 45-62.
- 한상철, 임영식 (2000). 청소년심리의 이해. 서울: 학문사.
- 한상철 (2001). 청소년기 위험행동의 원인 및 보호적 요소와 발달적 모형에 대한 탐색적 연구. 교육학연구, 39, 4, 한국교육학회.
- Alexander, C. S., Kim, Y. J., Ensminger, M., Johnson, K. E., Smith, B. J., & Dolan, L. J. (1990). A measure of risk-taking for young adolescents: Reliability and validity assessm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9, 559-569.
- Arnett, J. (1992). Reckless behavior in adolescence: A developmental perspective. *Developmental Review*, 12, 339-373.
- Arnett, J. (1998). Risk behavior and family role transitions during the twentie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7, 3, 301-320.
- Booth, R. E., Zhang, Y., & Kwiatkowski, C. F. (1999). The challenge of changing drug and sex risk behaviors of runaway and homeless adolescents. *Child Abuse & Neglect*, 23, 12, 1295-1306.
- Borum, R. (2000). Assessing violence risk among yout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6, 10, 1263-1288.
- Bowen, G. L., & Chapman, M. V. (1996). Poverty, neighborhood danger, social support, and individual adaptation among at-risk youth in urban areas. *Journal of Family Issues*, 17, 641-666.
- Boyer, C. B. (2000). Associations of sociodemographic, psychosocial, and behavioral factors with sexual risk and sexually

- transmitted diseases in teen clinic patient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27, 102-111.
- Clement, R., & Jonah, B. A. (1984). Field dependence, sensation seeking and driving behaviour.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 87-93.
- Cloninger, C. R. (1987). Neurogenetic adaptive mechanisms in alcoholism. *Science*, 236, 410-416.
- Conger, R. D., & Elder, G. H., Jr., (1994). *Families in troubled times*. New York: Aldine.
- DiClemente, R. J. (1991). Predictors of HIV-preventive sexual behavior in a high-risk adolescent population: The influence of perceived peer norms and sexual communication on incarcerated adolescents' consistent use of condom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12, 385-390.
- Donovan, J. E., Jessor, R., & Costa, F. M. (1991). Adolescent health behavior and conventionality-unconventionality: An extension of problem-behavior theory. *Health Psychology*, 10, 52-61.
- Dubow, E. F., & Luster, T. (1990). Adjustment of children born to teenage mothers: The contribution of risk and protective facto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393-404.
- Farrington, D. (1989). Early precursors of adolescent aggression and adult violence. *Violence and Victims*, 4, 79-100.
- Furstenberg, F.F., Jr., & Hughes, M.E. (1995). Social capital and successful development among at-risk yout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 580-592.
- Galambo, N. L., & Maggs, J. L. (1991). Out-of-school care of young adolescents and self-reported behavior. *Developmental*

- Psychology, 27, 644-665.
- Gullone, E., Moore, S., Moss, S., & Boyd, C. (2000). The adolescent risk-taking questionnaire: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evaluation.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5, 2, 231-250.
- Hartos, J. L., Eitel, P., Haynie, D. L., & Simons-Morton, B. G. (2000). Can I take the car? Relations among parenting practices and adolescent problem-driving practice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5, 3, 352-367.
- Hawkins, J. D., Catalano, R. F., Miller, J. Y. (1992). Risk and protective factors for alcohol and other drug problems in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Psychological Bulletin*, 112, 64-105.
- Heini, A., van der Molen, H. H., & Wilde, G. J. S. (1992). Risk-homeostatic processes in car-following behaviour: Individual differences in car-following and perceived risk. *Traffic Research Center monograph VK 92-02*. Groningen, the Netherlands: University of Groningen Press.
- Horvath, P., & Zuckerman, M. (1993). Sensation seeking, risk appraisal, and risky behavior.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4, 41-52.
- Irwin, C. E., Jr. (1993). Adolescent and risk taking : How are they related? In N. J. Bell & R. W. Bell (Eds.), *Adolescent risk taking*, Sage, Newbury Park, CA.
- Irwin, C. E., Jr., & Millstein, S. G. (1986). Biopsychosocial correlates of risk-taking behaviors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Care*, 7, 82S-96S.
- Jaccard, J., Dittus, P., & Gordon, V. V. (2000). Parent-teen communication about premarital sex: Factors associated with

- the extent of communication.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5, 2, 187-208.
- Jessor, R., Van Den Bos, J., Vanderryn, J., Costa, F.M., & Turbin, M.S. (1995). Protective factors in adolescent problem behavior: Moderator effects and developmental change. *Developmental Psychology*, 31, 923-933.
- Kafry, D. (1982). Sensation seeking of young childre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 161-166.
- Kazdin, A. E., Kraemer, H. C., Kessler, R. C., Kupfer, D. J., & Offord, D. R. (1997). Contributions of risk-factor research to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Clinical Psychological Review*, 17, 375-406.
- Kegels, S. M., Adler, N. E., & Irwin, C. E., Jr. (1988). Sexually active adolescents and condoms: Changes over one year in knowledge, attitudes and use.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78, 460-461.
- Leverly, B., Siegel, A. W., Cousins, J. H., & Rubovits, D. S. (1993). Adolescent risk-taking: An analysis of problem behaviors in problem children.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55, 277-294.
- Levitt, M. Z., & Selman, R. L. (1996). *The personal meaning of risk behavior: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friendship and fighting in early adolescence*, Lawrence Erlbaum Association Associates, Publishers, New Jersey.
- Luthar, S. S. (1993). Annotation: Methodological and conceptual issues in research on childhood resilienc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4, 441-453.

- Menaghan, E. G., Kowaleski-Jones, L., & Mott, F. L. (1997). The intergenerational costs of parental social stressor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8, 72-86.
- Miller, K., Levin, M. L., Whitaker, D. J., & Xu, X. (1998). Patterns of condom use among adolescents: The impact of maternal-adolescent communication.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8, 1542-1544.
- Moore, S., & Gullone, E. (1996). Predicting adolescent risk behavior using a personalized cost-benefit analysi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5, 343-359.
- Muller, C. (1995). Maternal employment, parent involvement, and mathematics achievement among adolesc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 85-100.
- Painter, K. (1997, February 20). Preteens ripe for parental straight talk. *USA today*.
- Rutter, M. (1990). Psychosocial resilience and protective mechanisms. In Rolf, J., Masten, A. S., Cicchetti, D., Nuechterlein, K. H., & Weintraub, S. (eds.),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Psychopath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w York, pp. 181-214.
- Selman, R. L., Schultz, L. N., Nakkula, M., Barr, D., Watts, C., & Wichmond, J. (1992). Friendship and fighting: A developmental approach to the study of risk and prevention of violenc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4, 529-558.
- Selman, R. L., Schultz, L. H., & Yeates, K. O. (1996). Interpersonal understanding and action: A developmental perspectives. In D. Cicchetti & S. L. Toth (eds.), *Rochester symposium on*

-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Vol. 3 (pp. 289-329), Hillsdale, NJ: Erlbaum.
- Simon, R. L., Johnson, C., Beaman, J., Conger, R. D., & Whitbek, L. B. (1996). Parents and peer group as mediators of the effect of community structure on adolescent problem behavior.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4, 145-171.
- Stacy, A. W., Sussman, S., Dent, C. W., Burton, D., & Flay, B. R. (1992). Moderators of peer social influence in adolescent smok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8, 163-172.
- Steinhausen, H., & Winkler, C., (2001). Risk, compensatory, vulnerability, and protective factors influencing mental health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0, 3, 259-280.
- Stevenson, H. (1998). Raising safe villages: Cultural-ecological factors that influence the emotional adjustment of adolescents. *Journal of Black Psychology*, 24, 44-59.
- Voydanoff, P., & Donnelly, B. W. (1999). Risk and protective factors for psychological adjustment and grades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Family Issues*, 20, 3, 328-349.
- Whitaker, D. J. & Miller, K. S. (2000). Parent-adolescent discussions about sex and condoms: Impact on peer influences of sexual risk behavior.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5, 2, 251-273.
- Zuckerman, M. (1994). Behavioral expressions and biological bases of sensation seek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w York.

Abstract

The Study on the Developmental Model of Risk Behavior of Adolescence

Han, Sang-Chul

The purpose of the this study are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isk behavior and related variables, and design the developmental model of risk behavior in adolescence.

The subjects for this survey are 500 students attending in middle and high school. "Adolescent Risk-Taking Questionnaire" developed by Gullone et al.(2000) be used for testing adolescents's risk behaviors including thrill-seeking behaviors, rebellious behaviors, reckless behavior, and antisocial behavior. The results are that male is higher female and high students higher middle students at both the total score and the sub-scales scores of the risk behavior.

Based on these results and the prior researches, the developmental model of the risk behavior is designed. This model are including risk factors(vulnerability factors) and protective factors(compensatory factors), and self-regulation abilities will decide either the main effect or the interactive effect of protective factors. A values of the following study was discussed for further studies.

<부록> 1. 위험행동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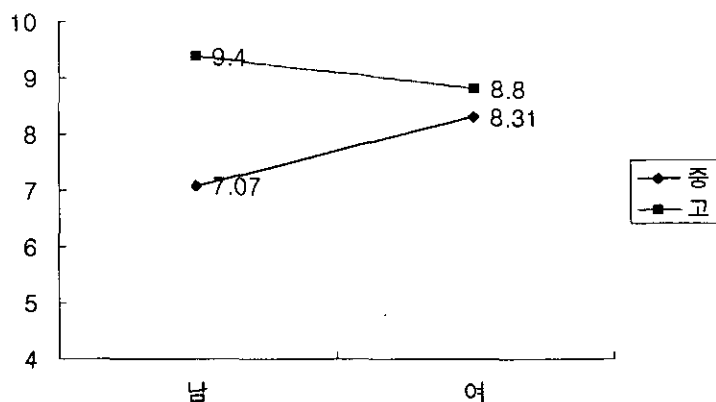
아래의 각 문항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O”표를 해 주십시오.

	질 문 내 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1	나는 스키 타거나 오토바이 타기 등을 좋아한다					
2	나는 태권도나 합기도 등 격투기를 좋아한다					
3	나는 스케이트나 롤러 브레이드 등과 같은 놀이도구 타기를 좋아한다					
4	나는 번지점프나 바이킹 타기와 같이 다소 모험적인 기구 타기를 좋아한다					
5	나는 어떤 경기나 놀이, 게임 등에서 다른 사람과 경쟁하기를 좋아한다					
6	나는 다소 위험하더라도 스릴을 즐길 수 있는 게임이나 놀이기구를 좋아한다					
7	나는 종종 학교를 무단 결석할 때가 많다					
8	나는 부모님에 대한 반항심으로 술을 마시는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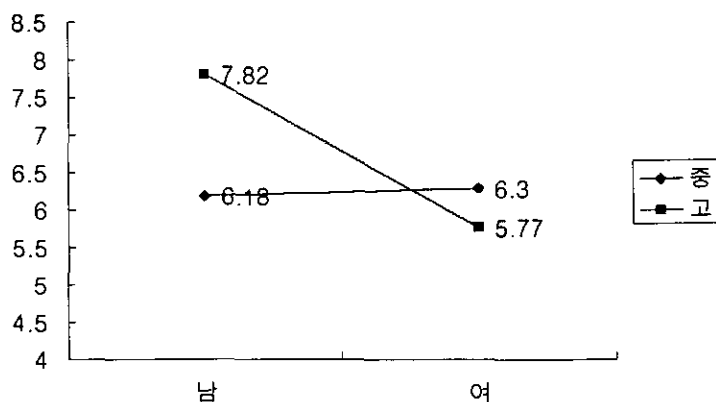
	질 문 내 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9	나는 담배를 피운다					
10	나는 술을 많이 먹는 편이며 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11	나는 이웃 어른이나 부모님께 반항한 적이 있다					
12	나는 집밖에서 늦게까지 머물며, 할 일없이 서성대거나 거리를 배회하는 경우가 많다					
13	나는 술을 먹고 오토바이 운전 을 한 적이 있다					
14	나는 술에 취한 사람이 운전하 는 차를 타본적이 있다					
15	나는 콘돔과 같은 피임기구 없 이 무분별하게 성 관계를 한 적이 있다					
16	나는 아무런 대책 없이 가출한 적이 있다					
17	나는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 한 적이 있다					
18	나는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폭 력을 가한 적이 있다					
19	나는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소매 치기한 적이 있다					
20	나는 남을 속이는 것이거나 시 험때 컨닝을 한 적이 있다					

	질 문 내 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21	나는 다른 사람과 함께 범죄행 동에 가담해 본 적이 있다					
22	나는 가스나 점착제(본드) 등을 흡입한 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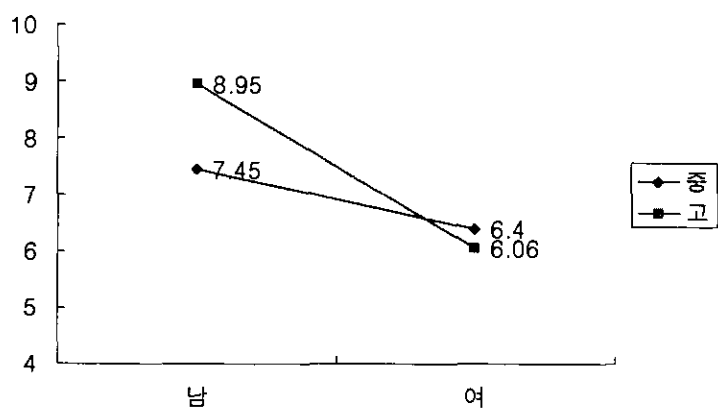
<부록> 2. 위험행동 하위 영역에 대한 성별과 학교간 상호작용 그림



< 그림 부록 2-1> 반항적 행동에 대한 성별과 학교간 상호작용



<그림 부록2-2> 무모한 행동에 대한 성별과 학교간 상호작용



<그림 부록2-3>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성별과 학교간 상호작용